금주의 법구-〈보리행경〉
듣고 사유하고 관찰하라
그릇에서 물이 새면
물이 채워지지 않는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61년 단기 4350년(음력 1월 19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 m 제1135호 2017년 2월 15일 수요일

포교사 응시 급감, 사라지는 포교인력

[진단] 포교사 제도, 이대로 좋은가 上

한국불교 포교의 중요 인력으로 평가돼 온 포교사가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매년 시행되는 포교사 고시 응시자가 급감한데 이어 포교사 인원 증가폭도 눈에 띄게 둔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포교사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매년 급감하는 포교사 응시자

사회 각 분야에서 포교를 담당하는 포교사는 1996년 제1회 포교사 고시를 시작으로 제도화된 이후 포교의 핵심역할을 맡고 있다. 포교원이 발간한 '2016년 포교현황' 자료집에 따르면 현재 4,809명의 포교사들이 군포교 · 교정교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조계종 포교사단(사단장 윤기중)은 최근 제22회 포교사 고시 응시자가 608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2년 전인 2015년 제20회 고시 응시자 1,002명에 비해 40% 가량이 감소한 것이다. 포교사 고시 응시자는 2015년까지 매년 평균 900명 수준을 유지했으나 지난해 752명으로 25%가 감소한데 이어 올해도 20% 가까이 감소했다.

응시자 감소는 전체 포교사 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70% 안팎인 포교사 자격 갱신률에도 포교사단 단원은 2011년 이후 200~300여명씩 증가해왔지만 2016년에는 35명 증가에 그쳤다. 응시자 감소에 따라 올해를 기점으로 포교사 수도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이 유력하다.

포교사 응시자 감소에 대해 포교사단은 "불교대학 수강생 감소 등 불자인구의 전반적인 감소를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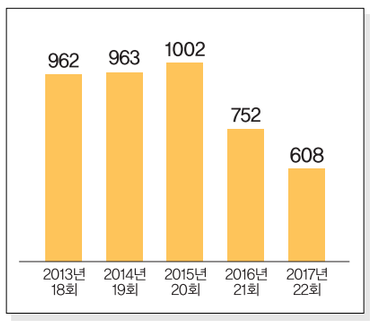
불교대학 졸업자 응시율 감소

불교대학 졸업은 포교사가 되기 위한 첫 관문이다. 그렇기에 불교대학 졸업자 수는 포교사 응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포교사단 측의 분석과 같이 각 사찰의 불교대학 졸업자 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다. 불교대학 졸업자 수는 2012년 5,700명을 기점으로 2013년 5,435명, 2014년 4,850명, 2015년 4,357명으로 감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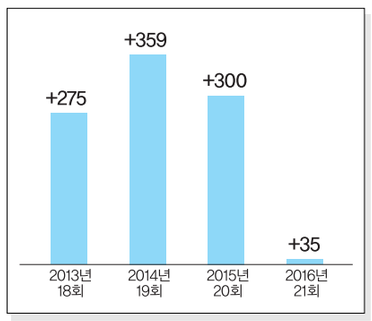
하지만, 불교대학 졸업자들의 감소에 비해 포교사 고시 응시자 감소폭이 더 크다. 불교대학 졸업자의 포교사 고시 응시율은 2011년 16회 고시까지 평균 20~22%로 유지됐다. 하지만 2012~2014년 17~18%선으로 하락했다. 졸업자 수가 대폭 감소한 2015년 20회 고시서 20%로 소폭 올랐지만 2016년 21회 고시에서 17%선 밑으로 다시 떨어졌다.

현재 2016년 불교대학 졸업자 수가 2015년 불교대학 졸업자 수와 비슷하다는 포교원 측 집계가 이뤄지고 있어 응시자가 적은 올해 제22회 포교사 고시의 응시율은 더욱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포교사 고시 응시자 현황 (단위:명)



포교사 증감 현황 (단위:명)



3년간 고시 응시자 40% 감소
포교사 인원 증가폭도 둔화돼
일선 사찰들 고시 응시 미권장
재정부담 · 활용 미비 감소 원인

봉사자 인식 개선, 활용법 화두
포교사 "지원 없이 원력 의존"
관리 다변화 대안 제시도 나와

외부 포교 VS 사찰 內 활동

그렇다면 불교대학 졸업자들이 포교사를 지원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각 불교대학 실무자들은 예상 밖의 대답을 내놨다. 사찰에서 포교사 활동을 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원주불교대학장 해운 스님은 "작은 사찰은 사찰에서 활동할 사람 한 명이 소중하다. 포교사가 되면 외부 포교에 집중한다. 공들여 불교교육을 하여도 '포교사단' 이름으로 활동하니 불만이 많다. 스님들이 권하질 않으니 자연스럽게 줄고 있다"고 털어놨다. 스님은 "포교의 중요성에 공감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사찰에서는 포교사 외부 활동에 대해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규모가 작은 사찰뿐만 아니라 대형사찰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박미주 조계사 불교대학 사무관은 "조계사의 경우 만해도 포교사들이 서울지역단 활동을 많이 한다. 포교사팀이 구성돼 있지만 실질적인 활동은 서울지역단에서 하고 있는 체계"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지적에 포교사단은 사찰 활동을 하기 위해 지난해 상 · 하반기 보고서에 재적사찰 활동 내역도 포함시켰으며 향후 갱신평가에도 사찰 활동 내역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원력 의존… 곱지않은 시선도

그렇다면 포교사들의 사찰에서의 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답일까. 포교원의 '2016년 포교현황' 자료집을 보면 현재 포교사 4,809명 중 사찰에서 활동 중인 포교사는 1,229명으로 전체의 25% 수준이다.

윤기중 포교사단장은 "사찰 내 활동 외에 외부 포교활동도 중요하다"며 "사찰에서 하지 못하는 다양한 포교분야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포교사들 중에도 사찰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이들이 있지만 정작 사찰에서 원하는 역할은 봉사자에 국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계종 포교법 제33조에는 사찰마다 스님을 보조해 포교할 수 있도록 포교사 1명을 두고 지원도 명시하고 있지만 이런 사찰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현재 포교사들은 지원 없이 대부분 자비를 활용해 포교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포교사는 "하나원에서 포교활동을 하는데, 공양물 등을 포교사들이 비용을 모아 준비하고 있다. 회비부터 각종 비용이 부담되지만 포교원력 하에 이어오고 있다. 사찰에 가면 사중 활동에 적극 참여를 못하니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고 말했다.

불교대학을 운영하는 황미숙 밀양 용궁사 총무과장은 "예전과 달리 불교대학 학생들도 수업을 겨우 이수하는 실정"이라며 "많은 졸업생들이 재정과 시간적인 어려움에서 포교사 응시를 하지 않고, 포교사를 하더라도 낮은 인식 등에 장벽을 느껴 갱신을 포기한다"고 말했다.

소통의 고리 다시 이어야

이에 근본적으로는 포교사에 대한 불교계 인식을 제고시키고 포교사들의 활동영역과 내용을 조정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청주 용화사는 포교사들과의 소통을 통해 사찰 내 활동도 이끌고 있다. 신도회 산하에 포교사회를 두고 사찰운영회의에 참여토록 한 것이다.

문애자 용화사 교무과장은 "포교사들이 사찰 운영에 참여하니 자연스럽게 사찰의 대소사에 동참하게 된다. 불교대학 교육과 각종 법회에 포교사들이 〈천수경〉 독경을 주도해 신도들에게 포교사를 알리고 있으며 외부 포교활동에 대한 인식도 제고된다"며 "소통의 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는 "출범한 지 20년이 넘은 포교사 제도에 대해 전면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점이 됐다"며 "현재는 스님과 포교사, 신도회와 포교사 간 유대관계가 끊기고 골이 깊어지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일부 사찰서 스님과 포교사가 갈등이 있거나, 신도와 포교사 간 마찰이 있기도 하다. 그 결과 사찰 인근에 포교사들이 따로 불교대학을 세우기도 한다"며 "사찰과 신행이 밑바탕에 있지 않으면 정체성이 흔들리게 된다. 포교사단 중심인 포교사 관리를 교구본사로 이양하는 것도 고려할만하다"고 말했다.

조현우 포교원 행정관은 "현재 불교대학 학장회의와 본사 포교국장 회의를 비롯해 포교사단과 지속 대화하고 있다. 올해 안으로 함께 소통하는 자리를 만드는 것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20년 가까이 포교사 활동을 해온 박종화 조계사 포교팀 본부장은 "포교사 지원자가 급격히 줄어든다면 선발되는 포교사들의 자질도 결국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포교사는 포교를 통해 불교미래를 담보하는 중요한 자산이라는 인식 하에 모두가 함께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한 철 잘 머물다 갑니다" 석 달간의 동안거가 끝났다. 첩첩산중 선방에 방부를 들이고 화두참구에 몰두한 스님들은 머문 자리를 정리하고 산문 밖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떠나는 이와 배웅하는 이, 구분되는 듯하지만 진리를 향한 구도행은 마치 거울을 들여다보듯 똑 닮았다. 사진은 비구니도량인 울산 석남사 선원서 안거를 마친 스님과 사중스님이 작별인사를 나누는 모습. 글 · 사진=윤호섭 기자

"오직 大悟見性만 생각하라"

전국 100여 선원, 2월 11일 동안거 해제

칼바람에 맞서 긴긴 겨울 화두참구에 나섰던 수좌 스님들이 2월 11일 동안거 해제를 맞아 산문(山門)을 나섰다.

조계종 전국선원수좌회가 전국 선원의 정진대중 현황을 정리한 '병신년 동안거 선사방함록'에 따르면 96개 선원(총림 8 · 비구선원 56 · 비구니선원 32)서 총 2,063명(총림 283 · 비구1,093 · 비구니 687)의 대중이 용맹 정진했다.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은 동안거 해제를 맞아 법어를 통해 "마음을 깨달으면 진리가 그 가운데 다 있으니, 삼보(三寶)가 하나이고, 하나가 삼보로다. 지금 이 자리에서 법문을 듣고 있는 마음, 바로 이것을 깨달아 알 때에 팔만사천 진리가 사람 사람의 마음속에 다 갖추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리라"며 "다시 마음을 다잡아 부처님의 은혜, 스승님의 은혜, 시주자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여 발심(發心)하고 발심하여 정진의 고삐를 놓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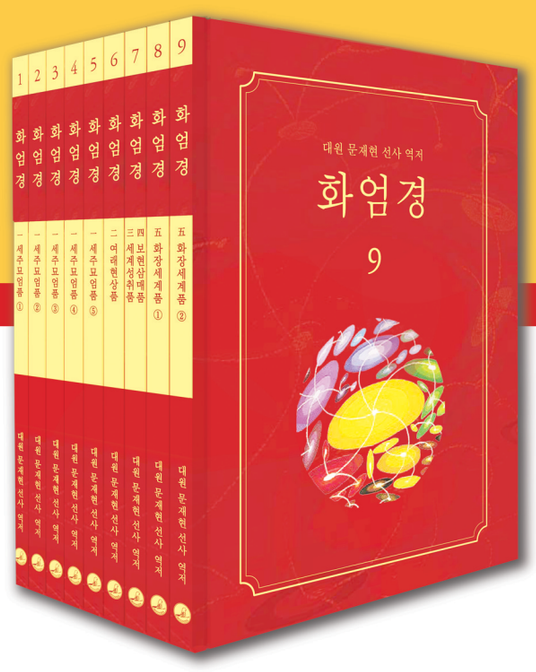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종정 및 총림방장 법어 A6면〉

특별기고 · 정휴 스님의 백담사 무문관 '是甚 日記' A7면

대원 문재현 선사님 현재 86권째 서적 출간
해인사 용성선사로 이어진 강맥을 한 몸에 받은
대한불교조계종 수덕사 만공 · 전강선사로 이어진 법맥과

선문염송 30권, 전등록 30권을 모두 역해하여
세계 최초로 1,463칙 전 공안에 착어한 혜안으로 화엄경 81권의 역해를 마치다!!



불조정맥 제78대인 명안종사의 눈으로, 역해와 더불어서 각권과 각품마다 자문자답의 결문으로 선미(禪味)를 더하여, 대천세계를 손바닥의 겨자씨 들여다보듯이 한 불보살님들의 지혜와 신통으로 누리는 불가사의한 화엄세계를 열어 보였다.

화엄경 81권 중 9권 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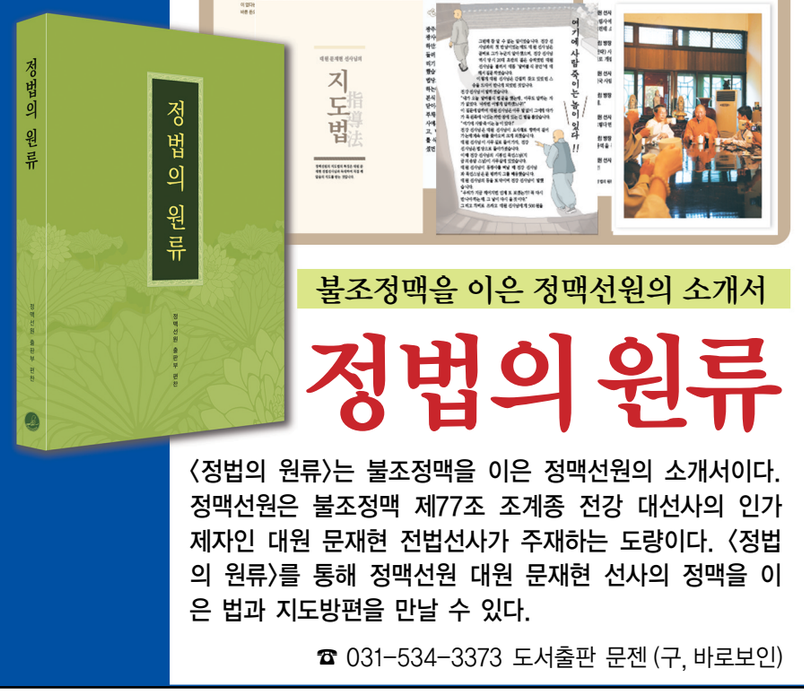
출간 불사 모연문

전자책 5권 무료 다운로드

전자책 1, 2, 3, 4, 5권을 무료로 공개하였으니 읽어 보시고 만인에게 권할 만한 화엄경이라고 여기신다면 81권의 서적과 전자책 출간에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료 전자책은 아래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www.zenparadise.com / 불사문의 : 010-4520-7963〉

* 정법의 원류 책 내용 일부



불조정맥을 이은 정맥선원의 소개서

정법의 원류

〈정법의 원류〉는 불조정맥을 이은 정맥선원의 소개서이다. 정맥선원은 불조정맥 제77조 조계종 전강 대선사의 인가 제자인 대원 문재현 전법선사가 주재하는 도량이다. 〈정법의 원류〉를 통해 정맥선원 대원 문재현 선사의 정맥을 이은 법과 지도방편을 만날 수 있다.

☎ 031-534-3373 도서출판 문젠 (구, 바로보인)